

박근혜정부 주요 장관·청와대 참모 내정자 잇단 의혹

“현오석, KDI원장-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관공비 616만원 주말에 사용” “김중훈, 2009년에도 CIA 활동” 허태열 논문 표절 “국민께 사과”

박근혜 정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임명한 새 정부 각료 후보자와 청와대 참모 내정자도 상당수가 도덕성 및 자질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취임 후,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내정자는 2009년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급여 875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어 “현 내정자가 취임 후 지난해까지 쓴 관공비 3천164만원 중 616만원을 주말 등 공휴일에 썼다”며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대를 결제한 내역도 포함된 것”이라며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장 취임 전에 대우인터내셔널을 방문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내부절차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를 제외하더라도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규정상 2개월 분 보수가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김중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2009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미국을 ‘조국’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스티븐슨 공과대학의 졸업식 연설에 앞서 이 대학 측과 가진 인터뷰에서 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 “조국(미국)에 감사한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벨 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하던 2007~2011년 CIA의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임한 사실이 있다”면서 “과거 경력이 장관직 수행의 결정 사유로 보지 않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20일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등과 관련, “최근 저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허 내정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1999년 논문 작성 당시, 논문작성 방법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점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허 내정자는 1999년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면서 이전에 발표된 한 사립대 교수의 논문을 ‘복사’ 수준으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허 내정자는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본의 아니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지 않다”고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南 최종파괴” 협박

화염싸인 오바마·미군 동영상도

제네바 군축회의서 언급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언급한 대남 위협이 심상치 않게 들린다.

북한 대표는 19일 유엔 산하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최근의 핵실험(3차 핵실험) 이후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a new-born puppy knows no fear of a tiger)”는 속담까지 인용했다.

물론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세계 각국 대표들의 규탄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지만 ‘최종 파괴’라는 단어에서 섬뜩함이 느껴진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위협이 핵능력, 나아가 핵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핵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일종의 ‘핵 그림자’(nuclear shadow)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자위적 조치로 설명해왔다.

핵을 배경으로 남측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최근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화염에 휩싸인 버락 오바

마 미국 대통령과 미군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현지시간) 현재 유튜브 등에 올라있는 이 동영상은 ‘미국의 덕이다’라는 제목으로 3차 핵실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약 1분 30초간 이어진다. 게시자는 ‘재미교포 푸른누리’로 돼 있다.

동영상은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평등도 없는 미국의 북에 대한 불공정한 강대행위가 도수를(도를) 넘는 속에서 북은 이번엔 핵실험을 진행하였다”면서 “약육강식을 생존본능적으로 삼는 미국과는 입으로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제침략자들을 향해 진행한 북의 높은 수준의 핵실험은 자주권 수호의 여격력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 동영상은 최근 미국 본토가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 포함된 ‘오바 9호를 타고’라는 동영상 인터넷에 게재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관예우 후보자

고액봉급자로 돌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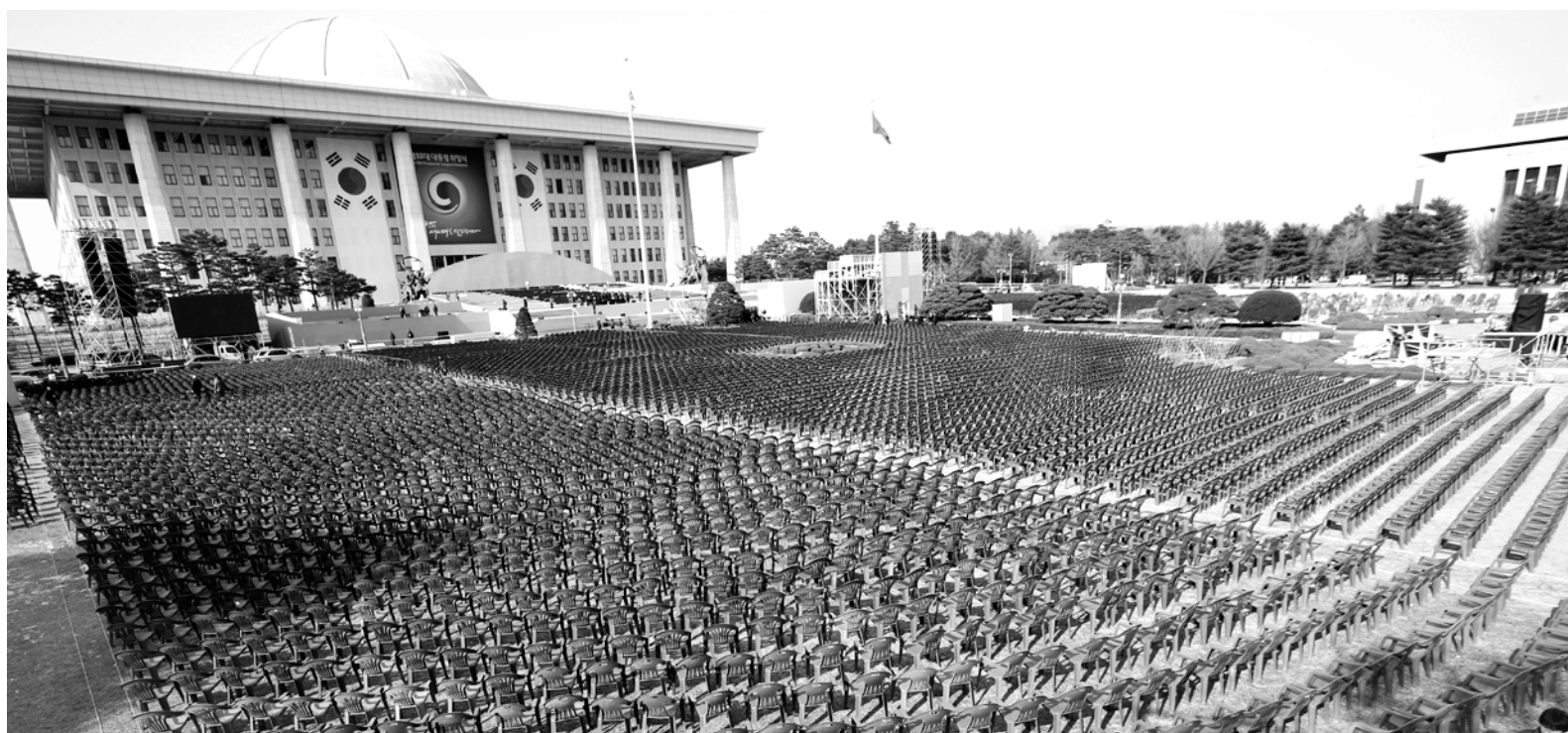
정의화 의원 비판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20일 새 정부 내각에 발탁된 일부 인사들의 공직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스스로 조용히 잘 판단해 고액봉급자로 돌아가는 게 어떨지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5선의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관예우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는 사실을 이번엔 알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분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국회를 졸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취임식 7만명 앓을 의자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뒷새 앞둔 20일 서울 국회 앞마당에 취임식 참석자 7만명이 앓을 의자가 놓여 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당선인의 취임식에 일반 국민의 선정이 쇄도하자 참석 인원을 당초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렸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재원에 국민연금 활용 안해”

인수위, 연금제도안 확정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지 않고 재정에서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제도안을 잠정 확정했다. 확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네 집단으로 나누고 기초연금 수령액을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미수령자인 약 300만명은 현재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원을 받게 된다. 하위 70% 중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자인 100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원 이

상, 20만원 미만은 차등 지급받게 된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도록 설계됐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닌 소득·재산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약 60만명은 4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150만명은 4만~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데

다른 연간 소요액이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해, 재원 조달방안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빚어왔다. 국민연금 활용안을 놓고 연금 보험료에서 소요 재원의 12% 또는 22%를 가져오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됐으나 ‘근로세대’의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 추후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U대회 의무분야 현장 점검

FISU 로렌스 링크 위원장 방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국제의무위원회(CMI) 위원장 로렌스 링크(Lawrence Rink·사진)가 21일부터 25일까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의무분야 준비상황과 현장점검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대회 조직위가 준비하고 있는 의무분야 서비스 지원 계획과 시설들이 국제기준에 적합

한지 등을 점검하여, 대회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을 하게 된다. 또한, 조직위와 CMI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의무분야 위생방역, 선수안전, 보험 등 의무지원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CMI 위원장 로렌스 링크는 U

/홍철기기자 redplane@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제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영일)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은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급구!
(매수자 대기) 2억~10억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
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입
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
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공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 아파트 밀집지역 및 상권 형성
된곳 병의원 신축부지 약 250
평 내외 구함

☆ 지하철 생촌역 인근 광송간 대로
변 사육부지 100~150평 구함

☆ 북구지역 사육부지(약150평내
외)또는 사육건물 구함

■상가건물■

☆ 광산구 신창동 보증금 3억5천
만원 월세 1,650만원 매매가
27억원

■대지,전,답,임야■

☆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9만원

☆ 서구 세화동 2차선 도로점 주
거지역 답 12,522㎡(763평) 매
매가 평당150만원

☆ 서구 화정동 지하철 화장역 인
근 광송간 도로변 준주거지역
대345㎡(104평) 매매가 평당
750만원

☆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답 2,
988㎡(904평) 매매가 평당60
만원

■전원주택지■
☆ 광산구 오동동 97번 시내버스
중점 마을 전원주택지(전망종
음) 전2,436㎡(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
형 매장 필요하신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영일분 손님
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보정점, 대인동 소재건너편)